

인간 마음의 죄: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

성경말씀: 롬1:18-32

몇 달 동안 기본 점검, <크리스천 기초 시리즈>, 지난주,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? 롬1:19-20

누구든지 무엇을 만들며 산다. 그러면서도 자기가, 지구가, 우주가 만들어진 존재임을 알지 못한다.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? 이런 명백한 지식을 가지고서도 그 기준 이하로 살면 죄인이다.

야만인, 이교도도 다음을 안다. 1 창조자 하나님(20), 2. 하나님은 영이다(23), 3. 거룩하고 죄를 미워한다(18), 4. 영광 받을 존재이다(21, 25), 5. 감사해야 한다(21), 6. 우상은 거짓이다(25), 7. 동성애 등의 모든 불의와 무절제는 죄(26-31), 8. 죽어야 마땅하다(32),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인인 하나님을 주인 대접하지 않으면 죄인(21)

왜 이런 본성적 지식이 손상되었는가?

수천 년 동안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숭배: 다신론, 범신론, 힌두교, 불교, 이슬람, 마리아 '정말로 사람의 본성 안에 이런 지식이 있는가?'

야만인만 그런 것이 아니다: 유럽, 미국, 일본, 스웨덴, 노르웨이 문명국 국민들, 다 같다.

있다면 왜 이런 지식이 거의 완전히 손상되었는가? 그 이유 28절, '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'

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의로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음: <제목 반복>, <제목 반복>, <제목 반복> 이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창조물의 특성

대표적 사례: 사탄과 그의 마귀들(약2:19; 마8:29), 사람도 동일하다.

심지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, 창조자가 있음을 알아도 고의로 무시하고 싫어하고 거부한다.

하나님을 지식 속에 두기를 싫어함(28)

너무 세상의 죄들이 좋아서 거기에만 애정이 감, 그것이 편안하다(약4:4; 골3:1-2).

하나님의 존재, 거룩함 등이 자기 마음과 의지의 죄와 충돌, 이것이 너무 괴롭다. 그래서 무시한다. 양심이 민감하면 매우 괴롭다. 지금까지 섬겨 온 가짜들, 진짜 하나님 비교, 얼마나 두려울까?

그 결과 우상 숭배 창안(22-23), 이들의 신: 꾸짖지 않는다. 복을 준다, 원하는 대로 들어 준다. 행14, 루스드라에서 병 고침, 이들의 반응(11, 13), 바울의 말(15), 하나님의 증거(16-17)

바벨탑 이후 고대 사회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 유지, 베이징의 천단, 상제 숭배

홍수 이후 약 4,50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거의 다 손실됨

1.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분의 인격과 거룩함 배제, 오직 사랑, 존경, 흠모, 복 '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힘'
2. 그 뒤로 다신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함, 특히 바울이 살던 로마 제국(행17의 아테네): 온 도시가 우상, '알지 못하는 신에게', 일본인의 예배: 오전 교회, 오후는 불교
3. 노아의 홍수 이후로 약 100세대가 지나오면서 다신론, 범신론, 무신론이 온 세상의 종교
4.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도 마찬가지로, 수십억 인구 중에서 8명만 구원받음, 희귀하다
5. 이 상황은 점점 나아질까? 주님의 말씀: No! 노아의 시대(눅17:26), 롯의 시대(눅17:29)
6. 그 이유: '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'
7. 우리가 해야 할 일: '유일하신 한 하나님과 화해하라'는 복음
8. 왜 우리가 배타적인가: 진리는 배타적이다(1+1=2). 여러 신 논리적으로 불가능, 여호와 하나님은 '스스로 존재하는 분', 절대자면 한 하나님, 나머지는 창조물, 구원의 방도도 오직 하나

개개인도 마찬가지로

크리스천 가정,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, 하나님 고백, 죄들, 천국과 지옥

그런데 크면서, 대학을 가면서 나쁜 사귀를 가지면서 이 지식을 두기 원치 않음, 견디기 힘들다.

그 결과 노인이 되어서는 극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

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, 의사 가정, 좋은 교육, 기독교 신앙, 의사가 되려다가 목사가 되려고 함
케임브리지 대학 신학부 졸업,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멸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됨
전 세계 거의 대다수가 그의 이론을 받아들임, 무신론자

4,500년 전, 홍수 이후 몇 세대, 한 하나님 개념 있음, 모두 타락하기 시작함,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
 이 집, 저 집, 결국 전체 국가, 주변의 모든 국가들
 그러자 하나님은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심(21), 온 이교도 세상이 그렇게 됨
 500년 쯤 지나 BC 2000년경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 실천(창12)
 유대인을 부르신 이유: 참 하나님, 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 주시려고
 인도, 태국, 이슬람 국가, 고려 시대, 조선시대 사람들 타락하는 과정이 동일함
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자유를 남용함,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, 버림받은 생각, 전 문명, 국가의 무지
 고후4:3-4

하나님의 구원 방법

모든 사람에게 시대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주신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한다.
 그런데 이 빛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의 지식을 주신다.
 행10의 고넬료(10:2),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함. 주님의 말씀: 베드로를 초청하라(6)
 그의 말(11:13-14), 베드로의 말(행10:34-35), 그런데 그 당시 이런 일은 수백만 명 가운데 하나
 지금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되어 그때보다는 쉬울 수 있다.
 그럼에도 심히 귀하다. 특히 말세에는 믿음을 보기 어렵다. 성경 무오성, 유일하신 예수님
 미국을 보라: 유일한 기독교 국가, 양심의 자유, 신앙의 자유, 230년이 정도 지난 지금
 동성 결혼 합법화: 세상에서 가장 미개한 국가, 캐나다, 스웨덴, 다 마찬가지
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 거의 다가 하나님에 관한 한 야만인
 과거 이교도 세상, 조선시대, 지금의 온 세상의 특징(18, 21, 28)
 예수님의 설명: 요3:16-20

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

1.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조차 안 함, 불편하다, 싫다.
2.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수의 신으로 대체,
3.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이 없고 무자비한 신으로 대체, 인신제물
4. 영원한 심판 무시
5. 하나님의 구원 방법 무시, 내 힘으로 해 보겠다.

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구체적 결과

1. 진리 대신 무신론/진화론을 주장하며 죄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사실 무시
 이사야 대언자(사5:13-14, 18, 20-21), 아예 판단의 기준 자체를 바꿈, 대표적 사례, 동성에
 눈먼 자들이 눈먼 자를 인도한다(마15:14). 둘 다 도랑에 빠진다.
 어찌 지옥 정죄를 피하겠느냐(마23:33)
 대표적인 사례: 지옥이 없다.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 심판한다. 하나님도 마찬가지.
2.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리를 약화시킨다. 성경 무오성, 몸의 부활, 휴거
 이것을 피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(롬3:4)

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

1. 고의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면 파멸에 이른다.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없다고 하는 것
 뇌가 안 보인다고 뇌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. 창조 세상과 양심을 통해 알 수 있다.
2. 돌아오라고 성령님이 부드럽게 권고할 때 돌아와야 한다(계22:17).
 요3:16이 선포될 때 믿고 돌아와야 한다.
3. 아는 것을 믿어야 한다.
 그러면 그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식이 될 것이다(벧후3:18).
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구해야 한다. 그리고 180도 돌아서야 한다.